

光州日邦



민간 자본 유치보다는 국가가 전략적 투자를

6·13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번엔 해결을

〈5〉서남해안 보존·개발 솔라시도 사업 범위 넓혀 섬·수산자원까지 포함 전남발전 전환점 삼아야

민선 7기에서는 전남도의 해묵은 과제인 서남해안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이 가진 천혜의 해안선과 섬, 깨끗한 공기 등 아름다운 경관, 건강한 수산물 등을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경관 훼손, 주민 민원 제기 등을 초래할수밖에 없는 민간 자본 유치보다는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선행해 민자를 유인하거나 국가가 주도해 민자를 선별적으로유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지적이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솔라시 도(옛 J프로젝트)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 면서 동시에 사업 범위에 전남의 섬, 수 산자원까지 포함시켜 전남 발전의 전환 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솔라시도 사업은 지난 2004년 7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포지역 혁신발전토론회에 참석해 서남권 대형 프로젝트 정부 지원 의지를 천명한 이후같은 해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 2005년 문화관광부 서남해안개발사업 구상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이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2006년 2월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한국관광공사 합동기획단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발주하는 등 정부와 경제계도 적극적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산대학교 www.kwangshin.ac.kr 으로 나섰으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이 같은 분위기는 급변했다.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지역건설업체, 지역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돼 2006~2007년 영암 삼포지구(면적 4.289㎢), 삼호지구(8.661㎢), 해남 구성지구(20.960㎢) 등의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 KAVO(주),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등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후 열악한 자본력, 공유수면의 토지화 지연, 정부 무관심 등으로 인해골프장 이외 다른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구성지구 기업도시 개발면적 중 1593만㎡(482만평) 규모의 공유수면의 토지화가 완료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당초 청사진에 비하면 초라하다. 전남도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지난 2010년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골프장을 축소하고 미래 신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교육기관 유치,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헬스케어 관광서비스 제공, 탄소제로 및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 건설, 미래형 대규모스마트팜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민간자본 유치 에만 의존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해 천혜 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으며, 자칫 개발 논리에만 치중해 주민의 터전과 관 광객들이 매력을 느끼는 공간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투자를 통해 보존·개발의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의 솔라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의 섬 관련 사업, 연륙·연도사업, 해양·수산 관련 사업 등을 집대성해 더 큰 전략을 수립,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초 솔라시도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경제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전제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정권 교체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장성군수·진도군수 ▶5면



활짝 핀 홍매화 … "광주에 봄이 왔어요" 12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홍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낮기온 이 20도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헌법 전문 포함…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정부 개헌안 확정

문대통령, 내부 검토 거쳐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 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 통령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 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 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반면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에서 포함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 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안을 최 종 의결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오전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안 골자를 브리핑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위 보고를 받 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부 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

년 연임제를 도입했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헌법에서 수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

헌법에서 수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논란을 촉발한 관습헌법이아니라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는셈이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

변호사 개업인사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들

도 논란 끝에 헌법 전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광주 서석초등학교, 학운중학교, 문성고등학교, 한양대 법학과, 전남대 학교 법학전문 대학원(6기) 21세기 법무 법인을 마치고, 이번에 강창원 변호사 님(사법 연수원 14기)과 함께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이루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물러 향후 법원 진출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 립니다

변호사 **강 정 훈** 올림

● 업무개시: 2018. 3. 16.(금) ● 개업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4 (동구 지산동 379-14) 법원 정문 앞 변호사 강창원·강정훈 법률사무소

개업소연: 2018, 3, 16.(금) 17:30
전 화: 062)232-2991, 2992
팩 스: 062)232-2994

핸 드 폰: 010-2025-2991

이개호 불출마 공식 선언 … 민주 전남지사 경선 판 커지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유력했던 이개호(담양·장성·영광· 함평) 의원이 12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

는 전남지사직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면서 "국정의 성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정 주도권을 보수야당에게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 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전남도민들과, 함께 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 다"면서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내 유일한 전남권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다시 전남도당위원장 을 맡아 향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 로 보인다.

이 의원의 이날 불출마 선언에 따라 김 영록 농림부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가 주 목된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 퇴 시한이 15일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은 곧 전남지사 출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 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사퇴를 한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도 14~15 일께 전남지사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 정이다. 신 비서관은 나주시장과 19대 국 회의원(나주·화순) 등을 역임했다.

노관규전 순천시장도 전남지사 경선 참여를 선언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와함께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조만간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